



[산업]
풀체인지 코나
소형 SUV
접수 예고
08



Life

[라이프]
혼술 트렌드에
위스키 수입액
7년만에 최고치
니



마포·공덕역 인근 재개발 심의 통과 3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서울 마포·공덕역 역세권 '재탄생'
35층·231세대 규모 주상복합건물
기든호텔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주상복합 건축물 조감도. /서울시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건립된다. 마포역 인근에서 40여년간 운영됐던 '서울기든호텔'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동주택 231세대(공동주택 46세대 포함)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이 만들어진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이 설치된다. 5층에는 입주인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만들어진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기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이 건립된다.

준공된지 40년이 넘는 서울기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이 줄어 관광숙박 단일 용도로 운영이 어려

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양질의 주거·생활편의·부대시설이 공급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다. 2층에는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도서관)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소상공인에 1조6000억 자금 지원

3.7% 고정금리 대출 7000억 공급
업체당 최대 5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용자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달 19일부터 신청받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시는안심금리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평균 3.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및 도박·항락·투기 등 용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안심금리자금공급으로 소상공인실부담금리가 시중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3300만 원 용자시 업체당 217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도 공급한다. 전체 중 2000억원은 자금 종류별로 연 2.0~4.1%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나머지 7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예상 실부담금리는 평균 3.8%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 전화해 방문일을 예약한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실국소장에 권한·책임 대폭 위임

시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조

고양시가 성공적인 민선8기를 위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실국소장 책임 행정 시스템'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잡았다.

이동환 시장은 18일 오전 시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보여드려야만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민선8기의 성공 여부도 달려 있다"면서 "1·2부시장의 주관하에 실국소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과의 상호소통 및 협력을 우선시하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이슈와 현안 해결, 시책 추진에 누구보다 전면에서 역동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시

민들도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더 이상 시의회나 언론에서 소통과 협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1·2부 시장 및 실국소장들의 책임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우선 민선8기의 산적해 있는 과제 해결을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판단하고, 오는 25일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추진한다.

기존 부서장들의 일방적인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계획과 현안을 간략하게 듣고 팀장·주무관들과 함께 민선8기의 개선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민, 버스 노선 조정·전세사기 해결 요구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버스노선 등 생활민원 주류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출구 신설, 704번 버스노선 단축, 빌라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OS를 보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달 초 구일역에 광명 방면 출입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광명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민으로서 답답하다"면서 "현재 광명시의 반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광명시에 지하철 출구를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5년 개통된 구일역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 구로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광명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출입구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구일역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서울 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송추 지역을 운행하는 704번의 노선 단축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는 "서울시도 비용을 아껴야 하겠지만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단축하면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시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는 704번 노선 운영시 발생하는 CNG 연료충전을 위한 공차이동 및 장거리 운행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B씨는 "첫 직장을 구해 꿈에 그리던 서울살이를 하게 됐다. 집 계약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였고, 만기가 돼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9일 (木) 음력 : 12월 28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4, 동두천 -8/4, 파주 -10/5, 가평 -12/2, 서울 -5/5, 양평 -9/4, 수원 -4/5, 용인 -4/5, 평택 -7/5, 인천 -4/5

해돋이 / 07:45 | 해질 / 17:4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아소 자민당 부총재, "원전 사망사고 제로" 또 망언
▲화이자, 북한 등 빈곤국에 의약품 500종 원가 공급 계획 /사진 뉴시스

▲'세계 최고령' 프랑스 앙드레 수녀 118세로 별세
▲주일대사 "강제징용 피해자, 피고 대기업에 사죄 요구해" 사죄·기부 촉구



▲다보스포럼 찾은 우크라이나 영부인 "영향력 사용해달라"
▲골드만삭스, 10년 만에 최악의 '어닝미스' 기록 /사진 뉴시스